

Left21.com

2011년 10월 15일 토요일 | Occupy Seoul 호외 | 레프트21은 다함께가 후원·지지는는 신문입니다.

레프트21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위기에 빠진 은행, 기업, 투기꾼을 구해 줬다. 반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살을 자르는 고통을 강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한편,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것은 최근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만 봐도 알수 있다. 게다가 2008년부터 은행, 기업, 투기꾼을 구하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 때문에 현재 각국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각국의 지배자들은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며 긴축정책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허



‘아랍의 봄’(좌)에서 ‘미국의 가을’(우)로 1968년 같은 전 세계적 반란의 도입부가 될 것인가



리띠를 졸라매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 일자리를 없애는 긴축 때문에 오늘날 유럽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스는 긴축정책으로 경제가 수축하면서 부도 위기가 더 커졌다.

이 시점에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를 점거한 젊은이들이 ‘왜 99퍼센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1퍼센트의 부자들만 도와

야 하느냐’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월가 점거 운동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국제적 반란에서 영감을 받았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민중은 독재정부에 맞서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했다.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노동자 수백만 명이 파업을 벌이는 일이 이어졌다. 월가 점거 운동은 이것의 연장이다. ‘아랍

의 봄’에서 ‘미국의 가을’로 이어진 것이다.

나라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랍 정부가, 유럽 정부가 1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펴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1퍼센트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이명박은 한술 더 떠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파산한 긴축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한미FTA 같은 벌거벗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도 월가 점거 운동과 아랍 민중의 혁명과,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을 본받아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99퍼센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월가 점거 참가자

“새로운 투쟁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로라 브라운 뉴욕 학생이자 강사

“이곳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최근(10월 5일) 2만 명이 참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사, 대학 강사,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노조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노동계급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상상하

면서 광장 점거를 조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떤 요구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총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광장 소유주가 우리를 강제로 내쫓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운동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아랍 혁명과 유럽 반긴축 투쟁

이집트 노동자와 민중은 올 2월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다음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자기 공장, 학교, 병원 등에 존재하는 ‘작은 무바라크’들, 즉 독재 정부에 충성했던 사장, 책임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이집트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도를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종교를 초월해 서로 연대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뒤흔들면서 ‘제2의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2의 혁명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대되고 있다. 10월 15일 유럽 브뤼셀에서도 수만 명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2009년부터 10여 차례 총파업이 벌어졌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5월 수십만 명이

광장을 점거했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져 2주 동안 전국이 마비됐다.

새롭게 긴축 정책의 표적이 된 영국,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도 총파업, 대규모 시위 등이 벌어지거나 준비 중이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은 1퍼센트의 공격에 맞서 99퍼센트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우리 99퍼센트는 요구한다

‘1퍼센트’에게 과세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재벌·부자들을 위해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서 이제 “균형재정” 운운하며 우리에게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1퍼센트 부자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가난한 사람들이 갚으라는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 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가난한 노인들의 자살이 계속됐는데 이런 비극을 더 키우려는 것이다.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난 나라 빚 1백50조 원 중 90조 원은 부자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 60조 원은 4대강 사업 등 재벌들 금고를 채워 주는 삽질 때문이다.

저들은 부자·기업 증세를 하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감세를 해 줬는데도 투자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따라서 부자 감세 철회뿐 아니라 부유세 등 재벌·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 돈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려야 한다.

99퍼센트에게 복지를 확대하라

우리는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할머니·할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한 명 당 평균 1천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복지 사각 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 확대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베짱이



정리하고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대

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조중동은 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대안이라며 ‘굳이 재벌 아들까지 공짜밥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이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베짱이’들인 재벌·부자의 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융과 외환을 통제하라

세계 경제 위기 심화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외자 유치와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를 초국적기업·자본의 ‘현금인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부메랑이 된 셈이다.

론스타 같은 초국적 금융 투기 자

본들은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서 ‘먹고 튀기’ 일보직전이다.

따라서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자본을 억제하고 그 수익을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외환을 통제하고 환율을 조절해, 대중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또,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9백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벌충하려고 빚을 늘린 데다가, 부동산 거품 증가 속에 주택담보대출을 전 사회적으로 부추긴 결과다.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노동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라

대졸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45퍼센트가 넘는다. 청년 실업자가 4백만 명이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도 1백28만 명에 달한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인턴, 비정규직 등 단기 저질 일자리다.

반면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최대의 순이익을 벌였고, 올해 초 재벌 총수들 역시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챙겼다.(이건희 1천3백41억 원, 정몽준 5백75억 원 등)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재벌·기업·정부에 맞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노인요양, 보육, 교육, 복지, 환경 등에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중 7퍼센트만 투입해도, 4년간 부자감세액 90조 원의 일부만 투자해도 이것이 가능하다.

미친 물가를 통제하라

물가 인상 때문에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 9월 석유제품은 지난해에 비해 24.4퍼센트나 올랐고 우유값도 10퍼센트 오를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올리며 물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물가인상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은 3.9퍼센트나 깎였다.(7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숨막히는 식료품비, 교육비, 전월세비 상승을 겪으며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매달 평균 16만 원씩 빚만 늘어나는 처지다.

그런데도 재벌 기업들은 이런 살인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기록했다. S-OIL은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1천17퍼센트나 늘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물가를 내려야 한다. 물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해 나머지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맨얼굴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일자리가 35만 개나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한미FTA가 GDP를 6퍼센트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세계경제 더블덱 속에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또 한미FTA를 통해 주로 서비스업에서 생긴다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기업들에게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체국 서비스를 축소시켜 택배 아저씨 일자리를 만드는 식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미FTA는 민영화, 외주화, 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무상복지 요구도 가로막히게 된다. 무상급식은 신세계푸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무상의료는 삼성생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노엄 촘스키 “노동자들의 참가가 중요합니다”

저명한 반제국주의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노엄 촘스키는 최근 강연회에서 월가 시위를 “자본주의에 맞선 대중적 시위”라고 부르며 이렇게 주장했다.

“월가 점거 시위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청년들이 원동력이 된 이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월가 시위를 1930년대 미국 공장 점거 파업이나 아랍 혁명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장 점거 파업은 엄정



10월 5일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참가하면서 월가 시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점거 파업은 노동자들이 사장과 관리자들을 내쫓고 공장을 자주관리하기 바

로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랍 혁명은 그 나라에 전투적이고 강력한 노동 운동이 존재할 때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대성공을 거둔 것은 혁명 발생 이전에 대규모 노동자 투쟁들이 진행돼 왔고 이들이 혁명이 발생할 길을 터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이 진지하게 운동에 뛰어든 자 혁명의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월가 점거 시위도 성공을 거두려면 바로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월가 점령, 유럽 총파업, 아랍혁명 ...

긴급 토론회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전 세계적 반란이 시작됐는가?

연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일시 :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7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대성당

주최 : <레프트21> 참가비 : 5천 원 (대학생·청소년 4천 원)

문의 : 02-777-2792

